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모두발언

#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2026. 1. 2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 대 영

## I.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오늘 학계와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용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II. 신용평가의 역할

---

현대적인 의미의 신용평가 시작된 것은 (美) 1800년대\*라고 하지만,  
신용평가의 역사는 사실 고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문명\*\*에서도 채무자 평판이나 지위를 리스크에 반영하고  
이자율을 달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 미국 상인이었던 루이스 태편이 상인들의 정보수집을 위해 1841년 뉴욕에 설립한  
The Mercantile Agency는 오늘날 세계 최대 CB사인 D&B(Dun&Bradstreet)의 모태가 됨

\*\* 로마의 대출업자(Argentarii)들은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상태 등을 기록하고,  
로마 시민권자나 명망있는 가문에 대해 낮은 금리를, 변방의 상인들에게 높은 금리를 책정

크레딧(Credit, 신용)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크레데레(Credere), “믿음”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신용평가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평가는 한 사람의 경제적·사회적 신뢰를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 기회를 배분하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스템도 신용정보법 제정('95년) 이전부터 민간과 공공의 상호협력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데이터의 품질이나 접근성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 신용정보의 깊이 지수(Depth of credit information index) 만점, 성인 인구 커버리지 100% 등 신용정보의 범위·접근성·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임 [WB 기업환경평가, 2020]

그러나 한편으로 금융 울타리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처럼 견조한 신용평가 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민음의 척도가 신용평가라면, 단순히 연체율(Credit)을 수치화(Rating) 하는데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신용평가체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발굴하여 금융의 문턱을 낮추어, 높은 장벽이 아닌 튼튼한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 Ⅲ.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와 혁신

---

지금 한국은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신용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심화라는 난제는, 역설적으로 고도화된 금융 시스템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스템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과거 데이터에만 매몰되어 누군가의 미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국제적 기준과 해외 우수사례들과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가혹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포용력으로, 성실한 국민이라면  
언제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두 번의 실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도,  
성실하게 금융 이력을 쌓아 나간다면(credit build-up),  
금리와 한도가 좋아지고, 더 나아가,  
제도권 금융에 다시 안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포용금융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일회성의 형식적인 지원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시스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용평가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같은 우리의 미래까지  
세심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 IV. 맺음말씀

---

우리 TF는 신용평가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회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금융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희망을 드리는  
진정한 “포용적 금융”으로 도약하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